

# 대진 시외버스터미널 포장 안돼 불편

## 맑은 날 흙먼지 날리고, 눈·비오면 흙탕물 ... 고성군 "철도청 반대안하면 추경예산 편성 계획"

### 철도청 부지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대진 시외버스 종합터미널 주차장이 30여년째 포장이 되지 않아 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흙먼지와 흙탕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에 따르면 대진 시외버스터미널은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인 1978년 대진시가 청호약국 옆에 있던 터미널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당시 고성군수의 요청에 의해 개인 축사로 운영되던 현재의 장소로 이전했다.

그러나 지난 34년간 주차장 포장이 이뤄지지 않아 맑은 날에는 먼지가 날리고, 눈이나 비가 오면 흙탕물이 튀어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대진 시외버스터미널 윤준원 대표(70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대진 시외버스터미널이 포장되지 않아 주민들이 흙먼지와 흙탕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세)는 "전국적으로 공공시설인 터미널이 비포장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며 "매년 100만원을 들여 자갈을 까는 등 불편을 줄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포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대진 터미

널 부지는 소유주가 철도청이어서 먼저 철도청과 협의를 해 반대하지 않을 경우 추경 예산을 편성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사 규모는 진입로와 버스 6대 정도가 이용할 수 있도록 포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광호 기자

### 기공체조교실 운영

#### 거진읍 초계·간성읍 장신리

고성군보건소는 한의약건강증진 지역보건사업의 하나로 1월 30일부터 3월 23일까지 거진읍 초계리와 간성읍 장신리를 대상으로 기공체조교실을 운영한다.

월·수·금, 주 3회 진행되는 이번 기공체조교실은 속초국학기공연합회 서병각 강사를 초청해 마을회관에서 50세이상 지역 어르신 4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공체조교실은 성장발육단계의 청소년부터 근관절의 퇴행단계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수행 가능한 전 세대적 체조운동이다.

일상생활능력의 저하를 막고 사회 참여와 건강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체기능 및 자긍심 향상 등 사회적 적응력 증대를 높여준다.

고성군보건소는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에게 더 나은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최광호 기자

## 2월부터 구독자 정리작업을 실시합니다

### 1년간 월 구독료 4천원 1회도 납부하지 않은 구독자 정리

1인당 1년간 우편요금만 5,760원 ... 경로당·다문화 가정 등 무료배송은 그대로

고성신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월 31일 창간한 고성신문이 어느덧 창간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본지를 아껴주신 정기 구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창간 2년차를 맞는 2012년부터는 그동안 일부 무료로 배달해 드린 신문을 모두 유료로 전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문 1부가 여러분의 가정에 도착하기까지 드는 비용은

인건비와 편집·인쇄비 등을 제외하고도, 1가정당 우편요금만 연간 5,760원이 소요됩니다. 이는 신문 1부 가격인 4천원보다도 많은 가격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부터는 1년간 월 구독료를 단 1회도 납부하지 않으신 독자는 순차적으로 신문발송이 중단됩니다.

이점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만일 신문이 끊어진 뒤 다시 구독하고 싶은 경우는 별도로 정기구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독료 납부 제외 독자님

- ◇칼럼위원 및 시민기자
- ◇1년 선금을 내주신 독자님
- ◇은행 자동이체 중인 독자님
- ◇교환지 형태로 받아보시는 독자님
- ◇독지가 기증 독자님
- ◇고성지역 경로당, 다문화 가정

## 주식회사 고성신문

신문구독 관련 문의 ☎033-681-1667